

NEWS LETTER

2021년 10월 18일 Vol. 420

삼보사찰 천리순례 현장 찾아 의료봉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불자 연우회는 지난 10월 9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경남 해인사를 찾아 의약품 전달과 의료봉사를 지원했다. 이날 의료지원에는 채석래 동국대학교의료원장을 비롯해 권범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최기석 일산행정처장, 이해원 연우회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외과 백용해 교수, 한방재활의학과 김호준 교수 등 교직원 불자 30여 명이 함께 했다. 연우회는 대장정 순례길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순례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방 침치료와 물리치료, 건강상담, 약처방 등 의료지원을 펼쳤다. 이와 함께 연우회에서는 순례 중에 발생하는 상처 소독용 물품과 한방파스 등 의약품 20여 품목과 대중공양금 200만원을 순례단에 지원하며 무사회향을 기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상월선원 후원을 통해 마련된 구급차와 건진운영팀 조은영 수간호사와 의료원 기획처 대외협력홍보팀 김명숙 팀장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이 상월선원 자비순례에 입재부터 회향까지 19일간 대중의 건강을 살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삼보사찰 천리순례길 동참

동국대학교의료원 교직원들이 지난 10월 16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일 참가자로 참여해 함께 순례길에 올랐다. 이날 순례는 동국대학교의료원 기획처 김광기 처장을 비롯해 의료원일산 기획처 직원 및 경주병원 직원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인 10월 16일 오전 내 이어진 비를 맞으며 24km를 걸어 5시간 행선 끝에 표충사에 도착했다. 표충사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순례단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축하 공연이 열렸으며 대광전 앞 회향식 때는 경내 마당에 환영 인파가 가득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충훈이 깃들어 있는 호국 성지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이다. 이날 순례길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모두 무사히 회향했으며 순례가 시작된 첫 주말부터 매주 동국대학교의료원 교직원들이 일일 참가자로 순례에 동참했다.



한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병원1층 로비에서 ‘한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방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한 의사협회에서 지정한 날이다. 이번 행사는 내원객 및 지역주민이 대상이다. 한방병원에서는 우리가족 건강을 지키는 한약재 및 보양제를 전시하고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에게 각종 한약재가 담긴 향낭주머니 600개를 무료로 제공했다. 임성우 일산한방병원장은 “한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의학인 한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방진료의 정보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협력, ‘코로나19 혈액 수급 극복’을 위한 헌혈 캠페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15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부족한 혈액 수급난에 도움을 주고자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자 감소에 따른 심각한 혈액 부족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이동 헌혈 버스를 통해 교직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헌혈증은 병원 진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사업실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정 헌혈을 통해 채혈된 혈액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